선행 압류채권자가 우선

여 지 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지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이는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채권이 가압류·압류된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권이 추가지정된 경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선행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위탁자의 수익채권을 감소 내지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보수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수익채권을 가지고('우선수익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수익권').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 법리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위탁자의 수익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5억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추가지정된 사안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수익채권으로 확정된 금원인 15억원에서 아무런 돈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탁자가 5억원의 범위만큼 위탁자의 수익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는 2순위 우선수익권 지정 이후로 후행 압류·추심명령도 있었습니다. 2순위 우선수익자는 적어도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만큼은 본인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후행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억원 중 5억원은 선행 압류채권자가 혼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나머지 10억원은 선행 및 후행 압류채권자가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아무런 금원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5억원에 관해선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맞지만, 5억원에 대해 선행 압류의 효력은 미칩니다. 선행 압류채권자가 5억원 전액을 혼자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탁계약상 권리는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신탁계약상 권리가 가압류·압류되거나 그 권리에 질권이 설정되는 등의 경우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K뷰티의 날갯짓

기자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K뷰티 인기를 직접 체험하게 됐던 계기가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길을 건너 온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명동' 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길 안내 끝에, 그 외국인 가족에게 '명동'은 무슨 이유로 찾아가는지를 되물었다.

그들은 화장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가족 중 20대 자매라고 자기소개를 한 젊은 여성은 명동에 가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들이 한 데 모여있어 여러 곳을 둘러보며 쇼핑하기 편하다고 들었다고 말을 이었다. 친구들에게 한국여행 기념으로 선물하기로 약속한 제품 목록도 보여줬다.

새로웠던 건 브랜드 종류와 다양성이었다. 각각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들은 마스크팩, 자외선 차단제, 클렌징 등으로 즐비했다. 마스크팩만 살펴봐도, 과거에는 낱개 포장된 얼굴 전체를 덮어주는 마스크 시트 제품을 묶음으로 구매해 선물세트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동그랗고 얇은 화장솜을 토너에 적셔 통에 담은 '패드' 제품이 등장했다. 마치 오이를 곱게 썰어 얼굴에 올리는 오이마시지를 현대화시킨 것 같기도 하다.

색조 브랜드도 눈에 띄었다. 특히 메이크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제품을 '쿠션' 형태로 내놓아 뷰티 혁신을 이뤄낸 것은 K뷰티가 원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 뷰티 시장에서 '쿠션' 제품은 파운데이션 본연의 메이크업 기능에 간편함과 휴대성을 더해 소비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쿠션이 일상 속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브랜드들은 해외 소비자 맞춤형 전략으로 제품 차별화에도 나섰다.

이밖에 국내 브랜드들은 자연주의 성분을 기반으로 한 비건 화장품, 뷰티테크를 실현한 뷰티 디바이스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따라 K뷰티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명동'으로 이끌어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아마존은 '프로젝트 K뷰티 고 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한국 뷰티 브랜드가 온라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2일 (음 6월 1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더울수록 여름철 감기를 조심해보자. **48년생** 가족에게 일취월장할 기회가 온다. **60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보라. **72년생** 행동은 사고에 의해 지배당한다는데. **84년생** 오늘 가벼운 산책으로 운동을 시작.

소 **37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한결 수월. **4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1년생** 장황한 자기소개는 자괴감만 일어난다. **73년생** 내일 부지런히 뛰지 않으려면 오늘 움직여야 한다. **85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버릇을.

호랑이 **3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5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62년생** 투자인지 그냥 적선인지 잘 구분. **74년생** 의미 있는 부여는 왜곡된 상황을 초래한다. **86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토끼 **39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51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3년생** 오늘은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도록 해라. **75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87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용 **40년생** 충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 법. **5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4년생**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욱더 분발해야. **88년생** 주변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자.

뱀 **41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필요. **53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연락이 오니 마음이 기쁘다. **6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77년생** 역마의 변화이니 두루두루 움직여라. **89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말 **42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다. **54년생** 배우자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66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 **78년생** 영업은 적극적으로 행동 계약 건 성립. **90년생** 복고풍을 따라가다가 지출만 늘어나게 된

양 **43년생** 입이 경솔하면 일을 망치기 쉽다. **55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자격이 있다. **67년생** 말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79년생** 성실한 탓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91년생** 뭔가를 시작하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원숭이 **44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56년생**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걸 명심. **68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면 원망을 듣는다. **80년생** 이직보다는 남아서 공부하도록. **92년생** 연인에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준다.

닭 **45년생**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외출도 자제를. **57년생** 친구에게 좋은 일을 양보하고 가슴이 흐뭇하다. **69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81년생** 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 된다. **93년생** 다가올 오늘 일이 나에게 달렸다.

개 **46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5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70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82년생** 누구라도 자신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9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진다.

돼지 **47년생** 오늘까지 버틸 수 있으니 희망이 있다. **59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83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 **95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

김상회의 四季

밥은 하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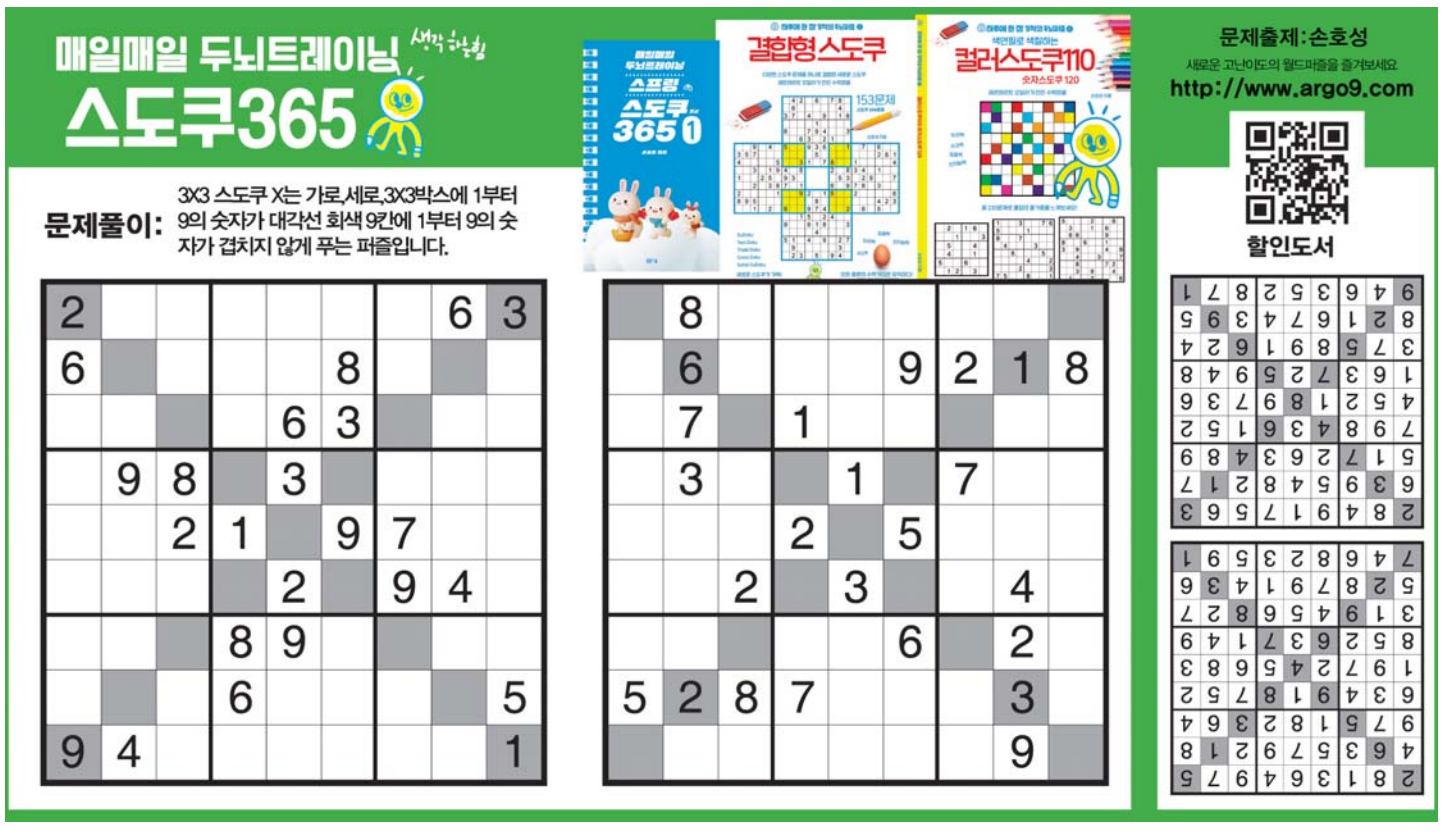
밥은 하늘이다. 사람에게는 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의 목적은 백성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백성을 잘살게 하는 걸 정치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다. 요즘 정말 밥이 하늘이 됐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물가는 날마다 뛰고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월급은 그만큼 내린 꼴이요 월급이 내렸다는 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말이다. 돈이 없으니 쓸 수 없고 쓰지 않으니 돈의 순환이 막힌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좋아질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정치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물가를 잡아서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해서 쓸 돈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 요즘 달걀 두부에 과일까지 먹는 건 사치라는 말이 우스개처럼 번지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다. 달걀 두부가 어떤 식료품인가. 어느 가정에서나 부담 없이 먹던 식료품이 사치가 됐다. 과일은 이미 일반 서민들이 먹기 어려운 품목이 됐다. 오이 가지 같은 필수 식료품도 선뜻 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야 살 수 있다는 말은 1980년대까지 자주 나왔는데 21세기에 다시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실질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소비를 확 줄일 수밖에 없으니 자영업자들도 죽을 맛이다. 재료비 원가는 올랐는데 손님은 적어지니 손실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자영업자 폐업과 개인회생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 정치의 몫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계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민생이 위기에 처했는데 여야가 무슨 상관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쟁만 벌일 때가 아니다. 민생을 돌아보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이 얼마나 큰지 귀 기울여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